

국가우주개발 계획상의 천문·우주관측위성 실행계획에 관한 연구

김두환

아주대학교

우주기술 선진국들은 21세기의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를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 천문 우주과학의 연구목적을 위한 천문·우주관측위성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관측위성들의 지속적인 활약으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업적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학문과 과학기술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기술적 교류가 빈번하여, 우주후발 국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가차원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수정된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 우주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시에는 발전적 검토작업을 통해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용관측 위성을 우주개발의 주요대상으로 해서 우주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한 첨단 우주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국제협력사업이 잘 되고 있는 천문·우주 관측위성분야의 우주개발계획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발전적 개정작업 수행시,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 연구목적의 과학관측위성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